

# 춤-연극 《시선(God's Eye View)》 분석을 통한 융복합 공연예술의 실험적 사고와 집단지성의 관계구조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al Structure of Experimental Thinking and Collective Intelligence in Convergent Performing Art: Focusing on Analyzing 《God's Eye View》

박소현, 안병순  
순천향대학교 연극무용학과

So-Hyun Park(sohyun8702@hanmail.net), Byoung-Soon Ahn(ahnbs@sch.ac.kr)

### 요약

최근 공연예술은 창의적 융복합의 실험적 사고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집단지성의 새로운 정착을 추구한다. 이러한 의미로 예술가의 수평적 창작구조 개념과 대중의 개체소통을 이해하고, 융복합의 사례에 적합한 작품 《시선》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연예술 융복합은 장르별 예술가의 경험적 사고와 통시성으로 접근하고, 작품결과의 해석과 가치는 수평적 관계구조로 공유된다. 둘째, 작품 《시선》의 시적이미지의 역동적인 소통과 의미로 표현되었다. 셋째, 융복합의 실험적 창조와 집단지성의 개체소통능력은 새로운 융복합의 가치로 표현되었다. 결국 융복합적 사고의 소통은 집단지성의 실험적 창조를 가능케 하고, 관계구조는 공연예술의 융복합적 해석과 표현의 유의미한 전이로 확장됨을 결론지었다.

■ 중심어 : | 융복합 | 공연예술 | 춤-연극 | 집단지성 | 시선 | 시적표현 | 움직임언어 |

### Abstract

Recently performing arts pursue a new rootage of the collective intelligence that seeks experimental thinking and diversity in creative convergence. Understanding in this way the concept of artist's horizontal creation structure and individual communication of the public, this study tries to analyze 《God's Eye View》, an example of convergent performing art.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s. The convergence in performing art could be approached through experiential thinking and diachronic of artists by genre, and the interpretation and its value of the result of work be shared horizontally. 《God's Eye View》 express a dynamic communication and meaning of poetic image, and shows the experimental creation of convergence and the individual communication ability of collective intelligence as a new value of convergence.

■ keyword : | Convergence | Performing Art | Dance-theatre | Collective Intelligence | 《God's Eye View》 | Poetic Expression | Movement Language |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접수일자 : 2016년 06월 22일

수정일자 : 2016년 07월 12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7월 28일

교신저자 : 안병순, e-mail : ahnbs@sch.ac.kr

## 1. 서론

최근 공연예술의 흐름과 표현 형태는 장르경계를 초월한 융복합(融復合)의 경향으로 더 이상 실험적 현상이 아닌 이미 정형화된 새로운 형태로 고착되었다. 문화와 사회적 현상의 유형으로 융합, 복합, 다원, 협업, 퓨전 등 장르간의 결합에서 나타나듯이, 예술작업에서는 융합(fusion)·통합(integration)·합병(amalgamation)·집합(convergence)·잡종(hybrid) 등과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예술에는 몇몇의 '시도'가 반복되어 '트렌드'가 되고 그것에 의미가 부여되면 '현상'이 되며, 현상의 장기화가 '사조'를 만들고 사조가 소멸불가의 힘으로 대중에게 각인될 때 하나의 '장르'로 자리잡을 수 있다[1]. 이는 예술에서도 불과 수십 년 전의 분화된 현상에서 비롯된 타 예술과의 개념화된 미학적 융합의 틀에서 벗어나 이미 독창적인 새로운 창작개념으로 정착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장르 간 융합과 수용형태의 외형적 특성보다는 관객과의 창의적 소통을 전제로 완성된 작품의 내용적 성과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창의성(creativity)·실현이라는 예술적 가치를 포함하며, 공연예술의 창의적 실현은 관객인식의 소통을 전제로 상호 새로운 발견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표현논리의 독창적인 전개와 소통능력의 창의적 가치로서 반드시 융합목적에 의한 실천이 있어야 함을 전제한다[2].

특히 춤 장르에 있어 최근 융복합의 경향은 주제접근의 새로운 창작코드와 무제한적 범위의 경계를 초월하는 소통이미지의 한계를 극복함을 창의적 실현의 성과로 인식될 수 있는데, 이는 개별화된 장르별 특성들이 융복합의 실험적 성향과 체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로 완성되었을 때 춤의 새로운 소통가치로 나타난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융복합의 의미들은 그 목적에 따라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통용되며, 세분화된 내용과 특성에 의해 다양한 용어로 분류되고 인문사회, 자연과학, 첨단융용기술과 산업의 전 분야를 포함 문화콘텐츠와 예술분야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전 분야와 문화예술영역에 이르기까지 융복합의 용어구분과 활용들은 내용과 목적의 개념만큼이나 혼란스럽다. 융합(融合)과 통합(統合), 통섭(統涉)과 통섭(通

攝)인데, 연출가 오세곤은 저서 『예술강국, 문화대국』에서 명확한 용어의 개념정의를 구분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적 의미로 '통합(統合)'은 "여러 요소들이 조직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룸"이고, '융합(融合)'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는 일"이다. 즉 '통합'은 그 안에서 때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융합'은 한 덩어리로 되어 나누어질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 '통섭(統涉)'은 "사물에 널리 통함" 또는 "서로 사귀어 오감"을 뜻하고, '통섭(統攝)'은 "전체를 도맡아 다스림"을 의미한다. 에드워드 오스본 월슨의 저서 『Consilience』가 「통섭(統攝)」으로 번역되어 소개되면서 유행되었는데 'Consilience'의 라틴어 어원이 "함께 넘나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통섭(統涉)'과 '통섭(統攝)' 두 단어 모두 연결이 가능하다. 예술에서도 '통섭'은 자주 거론되나 정확한 의미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조금 앞서 유행된 '통합'과 '융합'도 의미가 제각각인 것은 마찬가지이다[3].

문화예술교육과 공연기획 전문연구자 김지영은 최근 우리나라 융복합의 문화적환경과 공연예술흐름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문화예술분야의 총체적 관점에서 공연예술분야의 융복합(融復合)경향은 현시적(現時的) 관점을 뛰어넘어 공시적(公示的)·통시적(通時的)차원의 창작지평과 새로운 해석트렌드로 자리하였으며, 융복합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각 예술가들의 경험적 정의(經驗的 定議)에서 비롯된 '경험적 소통(經驗的 疏通)'과 수평적 소통(水平的 疏通)이 근본을 이루어야 함"을 주장하고, 장르별 예술가들의 경험적 사고와 융복합의 예술적 창작가치 확산을 위한 철학적인 배경을 전제로 2015파다프공연 축제의 포럼을 주도하였다.

결론적으로 융복합의 공연환경은 자연스러운 문화적 소통구조의 흐름을 배경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동시에 소통하는 협업의미와 다양한 대중과의 개체소통(個體疏通)의 협력을 통한 지적능력 즉, 집단적 능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새로운 창작 작품을 생산하여 공유하는 이른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새로운 현상으로 정의하였다[4]. 다시 말해 공연예술분야의 변혁적 흐름과 특성은 창의적 융복합이라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현상과 맞물려 장르별 예술가들의 경험적

사고에서 비롯된 수평적 구조와 대중의 개체소통 능력이 조화된 집단지성의 새로운 경향으로 인식된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춤 중심의 장르융합을 통한 경향은 1950-60년대를 기점으로 머스 커닝햄과 존 케이지(Merce Cunningham & John Cage), 이본느 레이너(Yvonne Rainer)를 포함한 저드슨 그룹(Judson group) 등 포스트모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안무와 공연형식은 실험성 즉, 창조적 파괴와 융합을 통한 그 무엇을 위한 예술적 행위였고, 특히 서사극으로 대표되는 피나바우쉬(Pina Bausch)의 춤 연극(Tanz théâtre) 이후 최근의 춤-연극 작품들, 예를 들어 마기마랭(Maguy Marin)의 <메이비 May-B>, 사샤발츠의 <육체 Bodies>, 빔 반데키부스(Vandekeybus)의 <블러쉬 Blush>, 나초두아토(Nacho Duato)의 <날개 Alas>, 조셉 나주(Josef Nadj)의 <태양의먼지>, 2013년 시디 라르비 세르카위(Sidi Larbi Cherkaoui) & 데미안 잘렛(Damien Jalet)의 <바벨 Babel> 등에 이르는 작품들은 춤과 연극의 경계를 훨씬 뛰어 넘어 이미 융합모드라는 새로운 창조의 혼용으로 인식되는 단계에 이르렀다[5]. 특히 시디 라르비는 영화<안나 카레리나(Joe Wright)작>, 시규어로스의 'Valtari' 뮤직비디오 등 여러 장르의 융합작업에서 두각을 보였으며, 파리의 오페라 가르니에 극장에서 선보였던 데미안 잘렛과의 공동작품 <볼레로 Boléro>는 융합영상미와 함께 공간영역의 무제한 상상블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이러한 작품성향들은 춤, 연극, 음악, 영상 등의 장르 융합을 통한 또 다른 탈장르의 실험적 혼용이라는 집단적 지성을 나타내고 있다.

태혜신·박명숙은 장르융합이란 테크놀로지의 실험적 혼용작업의 결과물로서 집단지성을 테크늄(Techuim) 현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 분야의 특수한 상황들 속에서 창조적 해결을 주도해 가면서 융합의 본질을 깨닫고 진화함을 역설하였다[6]. 그러나 다원적 환경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은 장르별 예술가들의 협업이 자유롭고 긴장과 묘미가 있으며 가장 세밀하게 접근해야 하는 치밀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융복합 공연예술과 관련된 선행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융복합 공연예술의 실험적 특성들은 “장르

별 예술가들의 경험적 사고와 대중과의 개체소통을 전제로 이루어내는 집단적 창작능력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연성공에 비해 작품분석을 통한 집단지성의 관계분석과 입증사례들은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연예술의 융복합을 “집단지성의 실험적 창조”로 규정짓고, 이에 적합한 춤-연극작품 《시선 God's Eye view》 분석을 통해 융복합 공연예술의 실험적 사고와 집단지성의 관계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및 목표

### 1. 분석관점과 연구방법

예술의 창의성과 표현 형태들은 예술가의 경험적 사고와 실험적 소통을 통해 새로운 힘과 에너지로 발현되며, 집단지성의 실험적 창조로 나타난 융합공연의 새로운 형태들은 탈장르와 융합모드를 뛰어넘어 이미 현대 공연예술의 새로운 경향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신체움직임을 통한 춤의 시적(詩的)이미지와 역동성은 장르별 역할구조에 따라 새로운 움직임의 소통방식과 재해석의 중요한 의미체로 작용됨을 강조할 수 있다. 동시에 융복합 공연예술의 탈장르와 혼용의 복합적 표현 그리고 이러한 관계구조의 범위에서 움직임의 실험적 창조는 곧 신체 이미지표현의 무한영역의 결과로 인식된다. 따라서 공연예술에서 집단지성의 실험적 창조는 현대 춤의 실험적 소통을 위한 움직임을 詩的인 이미지로 규정하고, “시정(詩情:poetic sentiment)의 창조적 본능으로 빚어진 움직임의 표현과 재해석[7]”이라는 나름의 명제를 부여하였다.

이는 대사언어를 포함한 장르별 소통과 매체들은 움직임이라는 시적 이미지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응축되어 작품연결을 위한 역동적 이미지(movement of dynamic image)로 재생산되어 나타나는 또 다른 의미의 소통언어인 詩-무용(poetic dance)을 상징한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융복합 공연예술의 다양한 실험과 집단지성의 새로운 형태인 파다프공연축제(Play Act Dance Art-Tech Film Festival)를 사례로 2014

PADAF 개막공연작품 춤-연극 《시선》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공연예술관련 융복합의 선행연구 자료를 토대로 문헌연구와 함께 제작과정 중심의 사례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연구의 방향을 위해 작품제작과 관련된 객관적인 모든 자료와 실제 융합공연의 작품 제작과정과 장면전체를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동시에 의미별로 범주화하였다. 특히 연구의 핵심인 장르별 융합의 실험적 사고와 상호요소별 인식 그리고 작품 ‘시선’ 제작과정을 통한 집단지성의 경험적 사고접근과 수평적 소통인식의 개념적 정의를 시도하고자 이들의 관계구조를 규명하는 데 분석의 관점을 두었다. 이 작품의 실험적 특성 가운데 가장 큰 이슈는 장르별 예술가들의 경험적 사고접근을 기본전제로 수평적 구조를 형성하여 이들의 실험적 특성을 담보하였고, 동시에 관객과의 개체소통을 예상근거로 가정하여 철저하게 집단적이고 통시적 차원으로 접근하였음을 밝힌다.

## 2. 연구목표

위와 같은 분석관점과 연구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공연예술의 융복합적 집단관계 형성은 장르별 예술가들의 경험적 사고공유와 상호연계의 수평적 접근으로부터 시도되는 새로운 인식차원에서 그 해석가치를 탐구한다.

둘째, 춤-연극 《시선》의 장면분석을 통해 상상과 무의식의 창조, 신체움직임의 의미형성과 시적 이미지의 역동적인 소통가치를 발견한다.

셋째, 이러한 새로운 소통가치는 장르별 예술가들의 경험적 사고와 수평적 소통으로 접근되는 공연 예술융합의 실험적 성과를 통해 형성됨을 전제로 관객과의 개체소통과 협력차원에서 지적능력의 다양한 가치의 확산과 극대화를 시도하여 집단지성의 관계구조를 규명한다.

이러한 연구목표의 실현은 춤-연극을 통한 움직임표현의 새로운 미적가치와 역동성을 재해석하고, 융복합 공연예술의 실험적사고와 집단지성의 관계구조로 입증될 것이다.

## III. 연구결과

### 1. 춤-연극 《시선》(God's Eye View)

2014 PADAF 개막공연으로 선정된 작품 ‘시선’은 영화감독 이장호의 작품<시선>을 모티브로 인간의 생명과 평화에 대한 영혼을 무대화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김형남(안무)·연출 겸 무용수로 참여한 배우 오광록·무용가 조하나의 하모니로 이뤄진 융복합 춤-연극 공연의 대표작이다. 안무와 연출은 2008년 단편실험영화 작품 [연보라 빛 새]에 안무가와 배우겸 무용수로 참여한 바 있으며, 배우 오광록은 2014년 이장호감독 <시선>의 주연으로 출연하였다. 데뷔 40년을 맞이한 한국 영화의 거장 이장호감독이 19년 만에 제작한 작품<시선>은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되었으며, 감독은 일본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에서 영감을 받아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순교(殉敎)와 배교(背敎)사이에 갈등하는 연약한 인간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함을 강조하였다[8].

영화<시선>은 목사, 선교사, 장로 등으로 이뤄진 선교그룹이 가상의 이슬람 국가 ‘이스마르’로 선교를 떠나 한국인 8명과 이들의 가이드 겸 현지선교사 조요한(오광록)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슬람 반군에게 납치되고, 반군 지도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목숨을 위협하는 반군 앞에 겁에 질린 선교그룹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데...(중략)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들은 침묵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드러나는 위선, 거짓, 불신, 미움, 폭력...인물의 내적 갈등과 심리적 변화로 진행되는 영화<시선>은 특별한 사건을 실제 상황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단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예상 상황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는데 집중한다. 영화는 캄보디아 울 로케이션 촬영과 현지인 캐스팅을 통해 해외선교 봉사활동을 떠난 한국인이 극한의 피랍 상황을 겪게 되면서 갈등하게 되는 종교적 신념을 사실적이고 긴장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9].

춤-연극 《시선》의 연출가 오광록은 영화[시선]의 인간적 심리와 갈등을 자신의 自作詩-[연보라 빛 새]의 이미지로 형상화하였고, 단편영화(詩-映畵)에서는 이를 모티브로 한 神의 이미지를 빛과 새의 구성을 통해 신과 인간의 아름다운 평등조건인 평화의 [시선]으로

투영하였음을 밝혔다. 따라서 융복합 공연작품《시선》은 오광록의 詩[연보라 빛 새](2009 국제 초단편영화제 출품작)를 주제로 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보라 빛 새]  
-오 광 록 作詩-

나는 강을 건너다  
연보라 빛 새와 부딪치었네.  
내게 묻더군  
“평화는 아직도 바람에 물어오지 않았는지...”

아, 무소용하여라  
나의 언어는...  
빛장을 열고 페이지를 넘기면  
모든 성전에는 독이 묻어 있었구나!  
바람은 벽에 갇혀  
벽에 갇힌 바람의 소리만...

나는 나의 문 앞에서  
나의 열쇠로 문을 잠그는걸 보았네.  
어둔 어둠 속에서 지퍼진  
어린 날들의 소원들...  
스러져 잠이 들어도 지치지 않고  
평화에 대한 적의를 품고 서 있었네.(이하생략)

詩의 내용에 등장하는 새의 형상은 神의 시선(God's Eye view) 곧, 신의 눈빛을 빌어 평화에 대한 이미지를 극대화시킴을 의미한다.

작품은 벽속에 갇혀있는 인간과 바람처럼 휘젓는 새의 평화롭고 일상적인 놀이와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새: 행복해?  
인간: 어!! 아아니...몰라~  
새: 왜?  
인간: 아이 갑갑하게...몰라!  
새: 여기선 푸른 향기가 나는데!?  
이리 와서 하늘을 보아...  
인간: 으음...시원해-아 좋아~ 바람!  
자유로운 냄새~~! ...(중략)

새: 이리 나와 바람의 악기 소릴 들어봐  
인간: 바람의 악기!? 우~와 멋진데?  
바람의 악기하면 휘파람 소리지...  
(휘젓다 멈추며)그런데 난 왜 한숨소리 밖에 없지?  
(바람이 불어대며 연보라 빛 새는 사라진다.)  
어...? 천사 어디가? 바람이 울어?!  
웬 악기소리가 울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뒷걸음치며 벽에 붙고, 영화 [시선]의 과도치는 장면. 인생 노년의 산책길. 신부님의 성스러운 기도의식과 미사집전 장면 등의 영상들이 전체를 뒤덮는다.)

이어지는 인간현실과 갈등들은 장르별 매체증식에 의한 물상화(shape of an object) 현상과 현실 속 인간의 2인무가 이어지고, 새와 인간의 역동적 흐름으로 연결되어 결국 작품 말미에 인간의 소리인 노래의 여운으로 아련히 남는다.(막)

## 2. 흐름 전개와 분석관점

초반 새와 인간의 움직임들은 일상적인 놀이형식으로 전개되고, 후반으로 이어가며 인간갈등으로 대별되는 남녀 듀엣은 인간의 갈등과 神의 환상(fantasy), 허구적인 상황 즉, 무위와 반복으로 나타나는 침묵과 부재(不在)의 움직임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후반의 신과 인간이 걱정적으로 부딪히는 장면들은 전체흐름의 하이라이트인 ‘허상’ ‘무위’ ‘반복’의 특성으로 대별되며, 내적요인과 ‘영상’ ‘공명’ ‘빛’의 환상이미지로 모여지는 매체들의 융합현상들과 흐름의 강박은 평화와 기다림으로 전달되는 관객과의 소통으로 증식(proliferation)된다. 특히 초반 영상 속에 비춰진 노년의 행복한 산책(전무송, 윤소정), 성당의 글라스 빛과 성스러움(홍창진 신부)등은 일상의 행복한 평화로움과 神의 평화구원에 대한 일종의 정화의식으로 표현된다. 곧 인간의 생명과 평화에 대한 신의 영혼과 영속성의 이미지 표현으로 대사, 움직임, 음악, 영상, 빛 등 복합적인 매체이미지가 혼재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전체적인 장면들은 융합구성의 핵심인 장르별 수평구조의 연결과 유연한 전개 방식의 흐름으로 작품전체의 균형과 조화로운 대비를 이뤄낸다. 다시 말해 대사언어와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詩의이미지는 시정(詩情:poetic sentiment)을 지닌 이른바 詩的 움직임(poetic movement)의 연결 형태로 서로의 의미관계(signification)형성이다[10.]

이는 장르별 혼용구조의 특성상 상호연계라는 융합 개념의 수평적 소통과 집단지성의 경험적 사고로부터 공유되는 관계구조의 새로운 가치로 입증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융복합의 실험적인 특성으로 결합된 공연작품 《시선》은 시적 움직임의 필연성에 의해 연결되는 상호연계의 이미지혼용과 수평적 융합을 통한 집단지성의 실험적 창조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 이 작품에서는 人間과 神의 필연적 관계를 평등구조로 전제하였고, 무위와 반복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허구적 상상은 ‘연보라 빛 세’의 시적 이미지로 투영하여 人間과 神의 실체 역시 곧, 평등에서 비롯된 구원의 의미관계로 연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장르별 표현들에서 세밀하게 접근되는 긴장과치밀함의 묘미를 더해 주었다. 이 작품의 내재요인과 외적 표현요소들은 시적 이미지를 활용한 융복합의 새로운 접근과 수평적 소통구조의 창작 가치로 개념화하였고 이는 [그림 1]의 내용과 같이 설명되었다. 결국 작품 《시선》은 詩的 움직임의 창조적 이미지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장르별 개체요소들은 역동적 이미지를 위한 새로운 의미역할들로 응축되어 나타났다.

이렇듯 최근 융복합의 공연예술은 ‘집단지성의 실험적 창조’로 대별되는데, 이는 다변화된 문화적 배경에 장르별 예술가들의 수평적 접근. 그리고 대중의 개체소통 능력과 협력에 의해 완성됨이 작품분석의 사례로 나타났다. 앞서 연구의 분석관점에서 제시했듯이 공연예술 분야에서 융복합은 “장르별 예술가의 경험적 사고와 지적능력의 수평적 구조로 표현되는 집단지성의 실험적 소통”으로 개념적인 정의가 가능함을 논의하였다.

##### 2. 결론

춤-연극 작품 《시선》 분석을 통해 이 시대 공연예술 분야의 융복합적 인식과 분야별 경험적 사고에서 비롯된 집단지성의 실험적 소통이라는 관계구조를 살펴볼 수 있었다. 흔히 영상중심의 예술적 혼용과정으로 나타나는 집단지성의 결과물을 테크눔(Techuim)으로 규정하듯 공연중심의 융복합 창작과정과 결과 역시 집단지성의 실험적 소통의미에 가치를 부여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목표의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연예술 융복합은 장르별 예술가의 경험적 사고와 통시성으로 접근하고, 작품결과와 해석과 가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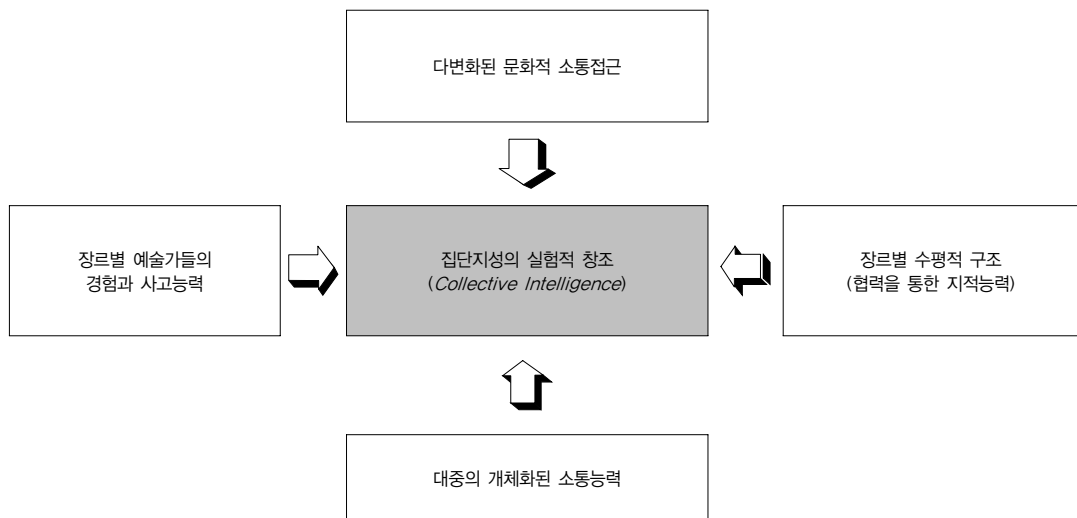


그림 1. 공연예술 융복합의 실험성과 집단지성의 관계구조

수평적 관계구조로 공유된다.

둘째, 작품《시선》의 장면들에 나타난 시적이미지의 창조적 본능은 매체이미지의 소통연결로 귀결되어 대사와 움직임언기 그리고 영상이미지의 역동적인 의미역할로 표현되었다.

셋째, 융복합의 실험적 창조와 집단지성의 개체소통 능력은 시적 이미지의 내적 소통요인과 외적 표현요소들로 나타나 다양성에서 비롯된 융복합의 개념화된 이미지가치로 표출되었다.

결국 다변화된 융복합적 환경과 개별적 사과의 소통 능력들은 집단지성의 실험적창조로 이어지고, 수평적 관계구조의 이해는 공연예술의 융복합적 해석에 유의미한 전이로 확장되었음을 결론삼아 이 연구를 맺는다.

**참 고 문 헌**

[1] 김예림, *예술융합, 그리고 국립현대무용단*, K-contemporary, pp.108-110, 2016.

[2] 안주경, “무용창작에 적용된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중성 표현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146-155, 2012.

[3] 오세근, *예술강국, 문화대국*, 순천향대학교 출판부, 2011.

[4] 김지영, “융복합 공연예술의 미래를 꿈꾸는 집단지성, PADAF,” 2015 PADAF FORUM 자료집, 2015.

[5] 안병순, “S.베커트 『고도를 기다리며』의 무용창작 과정,” 한국체육학회 논문집, 제46권, 제6호, pp.421-423, 2007.

[6] 태혜신, 박명숙, “무용학의 융복합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607-608, 2012.

[7] 안병순, “E. 이오네스쿠<의자들*Les Chaises*>을 통한 부조리극 특성과 현대 춤의 창작과정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7권, 제2호, pp.352-354, 2008.

[8] 강주화, “이장호작 '시선' 기독교화 전성시대,” 국민일보, 2014.4.16.

[9] 네이버 검색, 영화“시선”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05257#story>

[10] 안병순, *뮤지컬*, 순천향대학교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서울: 경성문화사, pp.148-160, 2012.

**참 고 문 헌**

**박 소 현(So-Hyun Park)**

**정희원**



- 2014년 2월 : 순천향대학교 연극 무용학과(무용학사)
- 2014년 3월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공연영상미디어학과 입학
- 2016년 2월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공연영상미디어학과(석사수료)

▪ 2015년 3월 ~ 현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용분야 예술강사  
<관심분야> : 무용교육, 무용창작

**안 병 순(Byoung-Soon Ahn)**

**정희원**



- 1987년 2월 : 세종대학교 무용학과(무용학사)
- 1989년 8월 : 세종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 석사)
- 2005년 8월 : 단국대학교 무용학과(무용학 박사)

▪ 2000년 9월 ~ 현재 :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연극무용학과 교수  
<관심분야> : 무용교육, 무용창작